

중국 수입길 막은 러시아 대체재는 한국식품

점차 긴박감을 느끼는 러시아

비어있는 진열 칸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길게 늘어선 줄. 이런 광경은 최근 포털 사이트의 참고 사진으로 접한 중국 및 한국의 모습이었다. 그리고 이 모습은 러시아의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.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출현 소식에도 정작 러시아 국민들은 느긋한 모습이었다. 하지만 급속도로 퍼지는 바이러스와 해외에서 귀국한 러시아인 확진자의 출현으로 하나 둘 씩 흑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대비 물품으로 밀가루, 통조림 식품, 위생용품, 마른과일, 냉동식품, 물 필터기를 주로 꼽았다.

자국민 보호로 시작했던 제한 조치

2019년 러시아의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은 1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3/4분기에 마늘, 시트러스 계 과일, 냉동 생선, 견과류, 커피, 차, 가공 식품 등의 수입량이 증가했다. 하지만 러

시아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과의 국경을 잠정적으로 폐쇄하며 수입의 20%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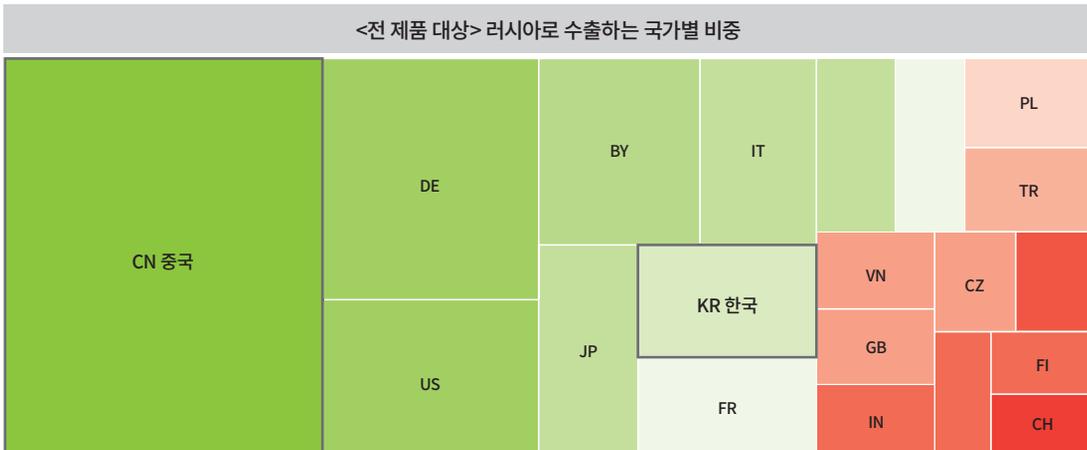
이에 따라 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특히 식품 공급량이 줄어들며 식료품의 물가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다. 마늘의 경우 2020년 1월에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37% 상승했으며 2월에 5.5% 더 상승하였다.

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체인 마트 마그닛 그리고 X5 리테일 그룹*은 더 많은 식품을 모로코, 이스라엘, 터키 그리고 러시아 내 판매자를 통해 공급받을 계획이다.

*러시아 내 대형 체인 마트 5ka, perekrestok, karusel의 소유 그룹사.

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, 러시아 AIF 신문기사에 따르면 오이, 토마토, 가지 같은 신선도 유지 및 보관기간이 짧은 식품 그리고 이국적인 과일 등은 중국 외에 대체할만한 곳이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.

<전 제품 대상> 러시아로 수출하는 국가별 비중



| 중국→러시아 수출 품목 |

Группа товара		2019	2019	Изм.	Σ (2019-2019)
01 : Продукты живот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	동물성 식품	\$6.89 млрд	\$1.64 млрд	▼ 76%	\$1.64 млрд
02 : Продукты раститель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	채소 생산물	\$11 млрд	\$3.09 млрд	▼ 72%	\$3.09 млрд
03 : Жиры и масла		\$1.27 млрд	\$296 млн	▼ 77%	\$296 млн
04 : Пищевые продукты, напитки, табак	식품, 음료, 담배	\$10.5 млрд	\$2.24 млрд	▼ 79%	\$2.24 млрд
05 : Минеральные продукты		\$4.82 млрд	\$1.09 млрд	▼ 77%	\$1.09 млрд
06 : Продукция 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		\$33.8 млрд	\$7.05 млрд	▼ 79%	\$7.05 млрд
07 : Пластмассы, каучук и резина		\$13.8 млрд	\$3.08 млрд	▼ 78%	\$3.08 млрд
08 : Изделия из кожи и меха		\$1.27 млрд	\$263 млн	▼ 78%	\$263 млн
09 : Древесина и изделия из нее		\$678 млн	\$148 млн	▼ 78%	\$148 млн
10 : Книги, бумага, картон		\$2.99 млрд	\$690 млн	▼ 77%	\$690 млн
11 : Текстиль		\$11.4 млрд	\$2.67 млрд	▼ 77%	\$2.67 млрд
12 : Обувь, головные уборы, зонты и др.		\$3.61 млрд	\$1.01 млрд	▼ 72%	\$1.01 млрд
13 : Изделия из камня, керамики и стекла		\$2.76 млрд	\$597 млн	▼ 78%	\$597 млн
14 : Драгоценности		\$1.05 млрд	\$183 млн	▼ 83%	\$183 млн
15 : Металлы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		\$17.7 млрд	\$3.75 млрд	▼ 79%	\$3.75 млрд
16 : Машины,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аппаратура		\$72.9 млрд	\$15 млрд	▼ 79%	\$15 млрд
17 : Транспорт		\$26.4 млрд	\$6.06 млрд	▼ 77%	\$6.06 млрд
18 : Инструменты и аппараты, часы		\$7.72 млрд	\$1.44 млрд	▼ 81%	\$1.44 млрд
19 :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		---	---	---	---
20 : Разные промышленные товары		\$6.19 млрд	\$1.37 млрд	▼ 78%	\$1.37 млрд
21 : Произведения искусства и антиквариат		\$13.6 млн	\$1.4 млн	▼ 90%	\$1.4 млн
22 : Скрытый раздел		\$6.11 млрд	\$1.66 млрд	▼ 73%	\$1.66 млрд
Итого:		\$242.8 млрд	\$53.3 млрд		\$53.3 млрд

러-중 간의 교역 마비를 이용한 한국식품 홍보 적기

주목할 점은, 중국과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차이가 있지만 식품부에서 한국 식품이 중국의 러시아 수출 식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.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중국 모두 식품 수출이 꺾인 상태지만, 중국과 달리 한국은 러시아로의 식품유통 경로가 아직 열려있는 셈이다. 현 정부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판촉 지원 및 원료 구매 자금을 큰 규모로 지원한다. 이런 상황에서 2월 모스크바 식품 박람회 한국관 참가업체들은 약 5,700만 달러의 상담성과 올리기도 했다. 한-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니 만큼 크고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계기로 한국 농수산물을 더 알리며 우리 식품의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Key Point

위기의 시대 역이용해 한국식품 알리자

중국은 러시아 시장의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만큼 중국으로부터 방대한 물자를 수혈받고 있던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며 교역을 중단하고 있다. 러시아내에서도 그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, 이 시기가 한국기업의 수출활로를 모색할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.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만큼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. 하반기에 계획된 다양한 행사를 활용해 러시아 소비자에게 한국 식품의 장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인지도 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.